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산·학·관·연 합동 해양정화 활동 실시

5월 2일 인하대·군산대 씨그랜트센터 등 200여 명 참석 예정
'개미취'(Aster tataricus) 모종 3000본 식재 블루카본 조성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등록 2025.04.30 10:26:12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해양정화 활동 참석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화성시 제부리 어촌마을에서 산·학·관·연 협업으로 해양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는 다음 달 2일 진행하는 해양정화 활동에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전북씨그랜트센터를 비롯해 (사)유나인체인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갯벌 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 능력으로 주목받는 염생식물 '개미취'(Aster tataricus) 모종 3000본을 전북씨그랜트센터에서 제공받아 제부리 갯벌에 식재해 블루카본(Blue Carbon) 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탄소 흡수력 회복을 위한 염생식물 심기 활동과 함께 경기 어촌마을과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어촌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바다가꿈 프로젝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